

세미나 2題

‘불교의 과학과 철학’ ‘화엄세계와 정보기술의 만남’

양자역학과 사이버세계가 인드라망에 걸렸다. 고려대장경연구소의 ‘불교의 과학과 철학’ (10월 31일 서울대), 동국대 불교사회문화연구원과 전자상거래연구소의 ‘불교의 화엄세계와 유비쿼터스 정보기술의 만남’ (11월 4일 동국대 경주캠퍼스)의 세미나가 바로 그 자리.

2500여년전 부처님의 사상이 인드라망이 21세기 첨단과학인 양자역학과 사이버세계와 연결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화엄경》에 나오는 그물인 인드라망은 세계의 모든 사물은 이 그물에 달려있는 구슬들처럼 서로 자신의 빛을 주고받으며 떨어야 할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다고 표현된다. 양자역학에서 미시세계의 개체가 서로 상관성을 보인다는 개념과 그물망처럼 얽힌 인터넷 네트워크와 그물코의 역할을 하는 컴퓨터가 만든 가상공간인 인드라망의 구조와 유사성을 보인다는 것이다.



◇고려대장경 연구소 세미나에서 불교와 과학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가 이뤄졌다.

외형적 유사성만으로 불교-과학 비교는 위험

‘불교의 과학과 철학’에서 ‘양자론에 대한 몇몇 자연철학적 단상과 불교’를 발표한 최종덕 상지대 철학과 교수는 ‘공간적으로 서로 떨어진 개체들이 서로 독립적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상관성을 보이는 공동의 한 체계’라고 말한 닐스 보어(Niels Bohr)와 같은 양자역학자들의 주장을 기반으로 양자역학과 인드라망과의 관계를 논했다. 최 교수는 양자 차원의 입자운동 상태를 인드라망 구조에 비유하는 것은 매우 조심스러운 전제를 필요로 한다고 말했다. “무경계의 마음을 다루는 불교의 언어와 경험세계의 경계를 인간의 이성으로 파악하려는 자연과학의 언어를 그 외형적 유사성만으로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일은 매우 위험한 인간의 또 하나의 오만함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이유를 밝혔다. 특히 그는 “직접적인 비유가 나쁘다기보다는 이러한 비유가 불교의 신비화를 가속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이를 수용하지 않는다”라며 자칫 불교가 과학에 편승해 신비화되거나 주술화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또 그는 “양자상태와 인드라망 상태가 같다는 말을 통해서 현대 양자역학의 이론이 이미 불교에 다 들어 있었고 그런 이유로 불교 사상이 위대하다는 주장을 한다면 불교 스스로의 품을 좁히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라며 “언어적 비유는 윤회의 끝이 언기에 맞닿아 있다는 것을

의 화엄세계와 유비쿼터스 정보기술의 만남’에서 조운호 전남대 철학과 교수는 ‘화엄사상과 사이버세계’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조 교수는 “사이버 공간에서는 반복적인 상호작용과 쌍방향성 소통을 통해 새로운 형태의 정체성과 공동체가 형성된다”며 “이같은 사이버공간의 속성은 화엄 불교 인드라망의 보석(각체)들이 상호작용을 통해 서로 의존하며 존재하는 것과 비교된다”고 말했다.

사이버세계와 법계의 실재성과 가상성에 대해서는 “깨달은 자의 눈에 비친 세상인 법계가 비록 중생에게는 신비한 환상적 세계로 보일지 모르나, 이것이야말로 세계의 있는 그대로의 참모습(실상·實相이다)”라고 말한다. 화엄세계=실제, 사이버세계=가상 이라는 공식 아래 그는 마지막 충고를 던진다. “화엄세계건 사이버세계건 그 기반은 현실이다. 현실에 발 딛지 않은 화엄세계, 사이버세계의 추구를 물입(勿入)할로 자기 기반적이고 도피적인 사(似)비(非) 삶이다.” 오유진 기자 e_exist@buddhapia.com

최종덕 교수 우려점들 해결되면 연기론과 소통 가능

조운호 교수 현실외면 화엄·사이버세계 추구는 기만

깨닫게 하기 위한 수단에서 멈춰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는 “몇 가지 우려되는 갈등만 해소된다면 연기설 혹은 화엄의 관계론을 통한 과학과 불교의 실천적 소통의 희망을 이야기하는 일은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화엄사상을 통해 사이버 공간에서 전개되는 현실에 대한 불교적 이해방식을 설명하는 논문도 있다. ‘불교

“서구성 반성하고 우리본성 성찰할 때” “남북·남남갈등 화쟁사상으로 해결”

‘혼돈과 해체의 시대 正·諍·和의 의미’

불교방송이 주최하고 대불련 총동문회와 불교지식인연대가 공동주관하는 ‘혼돈과 해체의 시대, 正(正)·諍(諍)·和(和)의 의미’라는 주제의 ‘불교사회사상 토론회’가 11월 7일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장에서는 이각범 정보통신대학원 사회학과 교수가 ‘포스트 모던 사회와 불교사상’, 성태용 건국대학교 철학과 교수가 ‘한국사회의 화쟁 사상의 현대적 조명’에 대해 발표했다.

이날 이각범 교수는 “근대사회가 갖고 있는 논리 일면성, 기계성, 단순성을 파헤치면 불교적 사유가 제시하는 포괄성, 복합성, 상호연관성이 언제나 본질을 가르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 교수는 “근대사회에는 자본과 노동, 중심부와 주변부, 지역 갈등, 남성과 여성, 세대 갈등 등 양분법에 익숙해 있다”며

“불교에서 모든 존재는 상호의존성의 관계 속에 있어, 무상의 법 아래에서 굳이 상을 세울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또 “근대성에 대한 성찰이 활발한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근대성과 서구성을 반성하고 잃어버린 우리의 본성을 성찰할 때”라며 “그 속에서 자비실천행을 할 때 우리는 진정한 자연과 하나 된 인간으로서, 세계 속의 한 나라로서, 그리고 더불어 사는 인간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성태용 교수는 원효의 화쟁·부사의 업(不思議)·정토사상을 통해 한국의 여러 갈등상황을 해결하는 시각을 제시했다. 성 교수는 “수평적인 차원에서 불교의 다양한 교리를 통일적으로 조망하는 화쟁사상은 계층간의 갈등을 해결하는데 적용할 수 있다”며 “화쟁사상의 틀 속에서 불 때 자본주의 사회의 특성인 수직적 줄세우기는 지양돼, 모든 구성원들이 자신도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전체에 기여한다는 자부심을 줄 수 있도록 의식화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너의 문제는 나의 문제는 자비를 벗어난 사람이란 입장을 바탕으로 둘 사이의 문제를 보고, 부사의업 사상으로 조화를 이루려는 시도를 할 수 있다”고 말하며 이외에도 남북문제, 남남갈등 등도 원효의 화쟁사상으로 해결점을 찾아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유진 기자



정병모 교수가 쓰는 불교 미술의 美

탐(1)

열반의 상징

“제행은 무상하고 이는 생명의 법이니라. 생명이 멸하여 다하니 적멸을 즐기노라.” 쿠시나가르에서 석가모니가 열반에 들면서 마지막 독백같이 한 말이다. 번거로운을 떠난 열반의 경지인 적멸(寂滅), 그것을 상징한 것이 바로 탑이다.

석가모니의 유해는 화장을 하였는데, 인근 나라에서 석가모니의 유골인 진신사리를 서로 가져가겠다고 분쟁을 일으켰다. 결국 석가모니의 제자드로나가 이를 중재하여 사리를 여덟 쪽으로 분배하였다. 그리고 나서 드로나는 사리가 들어 있는 병을 가져가고, 뒤늦게 당도한 나라에서는 남은 재를 가지고 갔다. 이렇게 하여 8개의 사리, 병, 재를 모신 무덤 10기를 세우게 되었는데, 이 무덤을 스

도 포함하여 모두 탑이라 부르는 것이다. 우리나라에 최초로 전해진 사리는 549년(진흥왕 10년) 양나라에서 보내온 불사리이다. 사신을 통해 불사리를 보내오자 왕이 백관과 함께 흥륜사에서 맞이하였다. 그렇다면 흥륜사에 불사리를 처음으로 봉안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이후 645년 자장법사가 중국에서 가져온 불사리가 우리가 주목할 만한 역사이다.

자장법사가 중국 태화지 못가의 물로 만든 문수보살상 앞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7일째 되는 날 문득 꿈에서 부처님이 네 구절의 시를 주었다. 깨어보니 그 시 구절이 모두 범어로 되어 있어 그 내용을 알지 못하였다. 이날날 문수보살이 스님의 모습



◇興隆寺9층 목탑사: 자장법사가 가져온 불사리를 모신 탑 중의 하나이다.

불사리·불경 모신 무덤... 예배의 대상 인간의 적멸에 대한 간절한 소망 담겨

투파라 한다. 이로부터 100여년 뒤 기원전 3세기에 아소카왕(재위기간 기원전 268경~232경)은 8개의 사리탑을 열어 이를 다시 8만4천 개의 사리로 나누어 스투파를 봉안하였다. 이를 계기로 스투파 신앙이 일반화되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초기의 예배대상은 열반의 경지를 상징하는 탑이었다.

이 스투파신앙은 실크로드를 타고 중국, 한국, 일본에 전파되었다. 그러한 과정에서 범어는 스투파이고 파리어로는 투파이고, 한 자어로 塔(塔)로 번역되면서 탑과를 간단히 탑이라고 지칭되었다. 또한 불사리를 모신 곳을 적멸을 즐긴다는 석가모니의 말에서 따와 적멸보궁이라고 불렀다. 따라서 탑이라 하면 원래 8만4천 개의 불사리를 모신 무덤을 가리킨다. 그러나 점차 세워지는 탑에 불사리를 모두 모실 수 없기 때문에 유사한 사리나 불경 등을 대신 봉안하고 이들

으로 나타나 범어로 된 시의 뜻을 풀이해주고 붉은 길에 금점이 있는 가사 한 벌과 부처님의 머리뼈 하나, 부처의 머리뼈 한 조각을 주면서 잘 간직하고 있다가 신사로 가져가라고 부처했다. 자장법사는 643년(선덕여왕 12년) 부처의 물건을 신사로 가져와 그것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경주의 황룡사, 울산의 태화사, 양산의 통도사에 모셨다. 2000년 6월 통도사에서는 국립중앙박물관에 보관된 황룡사의 진신사리 2과를 1400여년 만에 세상에 공개하였다. 하나는 4mm, 다른 하나는 2.8mm의 크기로 구슬과 같이 투명하였다. 8만4천개의 불사리에 대한 관심은 예나 지금이나 매우 높다. 가끔 인도나 스리랑카에서 불사리를 모셔와 탑을 세운다는 소식이 크게 화제가 되는 것은 우리 안에 내재된 적멸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드러난 예이다. ■경주대 문화재학부

파동명상수련을 통하면 영통(靈通)을 이룰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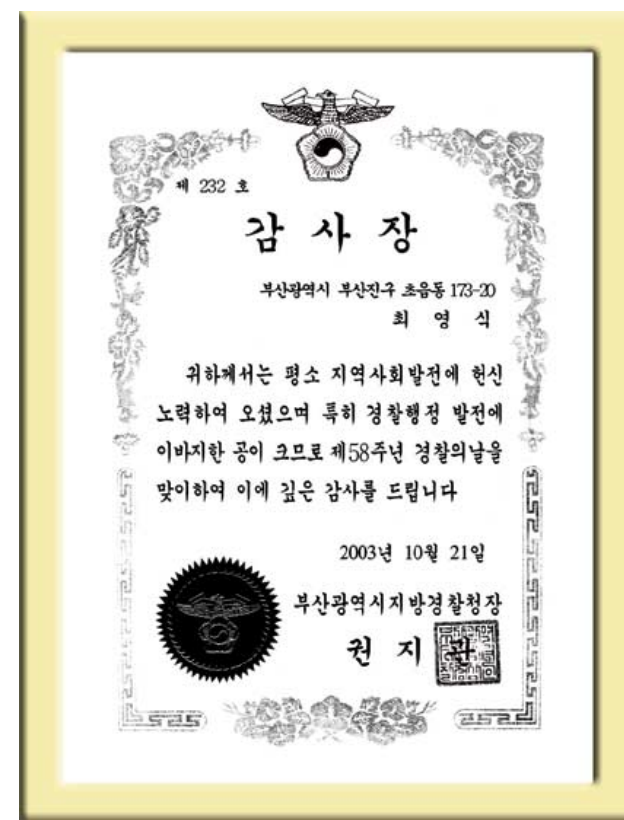
◇지도교사 박봉순
◇2001년 10월 SBS 호기심천국
◇2002년 4월 KBS VJ특급대
◇2003년 3월 i-TV 위험한초대 출연

◆「파동명상 지도사」양성 과정

우주에 충만한 생명 파동 에너지와 우주의식(자연의식)을 100% 활용할 수 있는 수련을 통해 인간의 내면에 숨어 있는 놀라운 잠재능력과 우주의식을 끌어내어 자신과 타인의 영적(靈的) 문제를 손쉽게 해결하는 영식(靈識)과 능력을 획득하게 되고 자신은 물론 타인의 영적 진화와 발전을 돕는 <영혼 명상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수련내용

- ◆ 파동명상제령: 제주(祭主) 또는 신도가 몸속의 영가와 대화할 수 있으며 그들이 떠나가는 것을 직접 목격할 수 있다.
- ◆ 원격명상제령: 제3자가 파동명상상태에서 원하는 사람의 몸속에 있는 영가를 불러내어 대화하거나 제령천도 할 수 있다.
- ◆ 영통靈通수련: 특별한 파동명상 기법을 통하여 영통을 열 수 있게 하는 비법을 전수한다. (영통수련은 상담 후 결정)
- ◆ 수련대상: 스님, 법사, 기공사, 의사, 약사, 기타 상담사
- ◆ 수련교재: 기초교재, 비디오 테이프, CD 교재
- ◆ 수련일시: 11월 셋째주, 넷째주
- ◆ 수련과정 (1대 1 개인지도도 가능, 전화문의 바람)
 - ① 파동명상 전문반: 파동명상 지도사 수련과정으로 6일간 수련으로 지도사 자격증 수여. (수련비 200만원)
 - ② 영통수련반: 상담 후 결정



파동명상수련(靈通)으로 수많은 강력사건(유괴살해장난, 강간)을 해결하는데 기여도를 인정받아 제 58주년 경향의 날을 맞이하여 부산 지방 경찰청장으로부터 본 감사장을 수여 받았습니다.